

덴마크 가족계획협회 부회장 한네 리처



‘21세기를 향한 가족계획 신규 시범사업세미나’에 참석한 덴마크 가족계획협회 한네 리처 부회장으로부터 덴마크의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 들어보았다.

“국민학교에서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70년 제정됐죠. 그 뒤 학생들은 코펜하겐에 있는 피임클리닉 견학도 하는 등 포괄적으로 성교육을 받고

있습니다. 학생들 반응도 적극적이어서 교사가 소홀히하면 ‘우리는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’며 강력히 주장하지요” 덴마크

국교부터 성교육...‘호기심’ 떠나 생활의 한부분

의 경우, 국민학교 6~9학년은 일주일에 1~2시간 따로 성교육 시간을 배정하고 1~5학년은 일반과목에 통합해 가르치고 있다. 문교부가 만들어내고 있는 국

민학교용 성교육교과서는 성교육의 목표를 성에 관한 지식이 라는 차원을 넘어 인간이 살면서 성을 어떻게 잘 누릴 수 있을까 하는데 두고 있다.

“인간생활에서 성적인 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면서 성적인 면과 관련된 감수성개발에 중점

을 두지요. 이밖에 △성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막연한 공포에서 학생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돕는 것 △자기 개성에 맞는 성에 대한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돕

는 것 △성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 등입니다”

학교에서 성교육이 실시된 뒤 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는 ‘호기심이나 공포’로 보다는 ‘생활의 중요한 부분’, ‘책임감있는 행동’ 등으로 변화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.

덴마크에는 의과대학 밑에 2년과정의 성과가 설치돼 이 과정을 마친 의사, 사회사업가, 교사들이 의대 성클리닉에 배치돼 무료로 성상담을 해주고 있다. 청소년들도 이들 클리닉을 통해 무료로 성상담을 받을 수 있다.